

유럽 포장 폐기물 시스템 현황
올 2월 기준, 회수 설정 목표 높아

아래 표는 올해 2월을 시점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12개국의 포장 폐기물 처리 시스템(플라스틱에 한하지 않는다. 일반 폐기물)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

다. 법제에 대해 2월 시점에서는 영국만이 약간 대응이 뒤늦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작년까지 발효하였다. 이 가운데 스위스처럼 1991년 11월 이후 PVC 음료 용기를 금지한다는 식의 엄격한 사항도 있다. 수집이나 회수를 사업자의 거래

의무로 하는 국가는 조건부 국가를 포함하면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5개국에 이른다.

회수 목표를 보면 스웨덴에서는 1997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의 65%, PET 병이 90%이다. 핀란드에서는 포장세를 도입한 후 4년 이내에

국 가 명	법 제	적용 포장	수집 회수
오스트레일리아	포장 정령 1993년 10월 발효	수송, 판매 및 2차 포장	사업자에게 거래의무, 업계시스템이 확립되면 면제. 지방자치체에 하청 가능
벨기에	환경보호세(Eco-Tax)법은 각종 포장에 적용 협정을 벨기에 전 3지역이 조인	Eco-Tax 각종 포장에 자주 협정은 국내 전포장폐기물을 커버	사업자에게 지방자치체가 인가한 리사이클 조직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덴마크	어떤 종류의 포장은 금지, 제한, 라벨링 및 예치/과세를 목적으로 한 여러 종의 법적 규제 있음	각종	생산자에게 거래 의무 지방자치체에 가정, 유통의 포장 폐기물 수집 시스템 확립의 의무
프랑스	포장폐기물법 1993년 1월 발효	판매용 및 2차 포장	지방자치체가 실시한다 사업자는 예코엔벨러뒤를 통해 포장폐기물을 회수한다.
독 일	Topfer법은 93년 1월에 성립, 95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현재 검토 중	수송용, 판매용 2차 포장	생산자에게 거래 의무 지방자치체 외의 시스템(DSD)이 확립되면 면제
이탈리아	액체 용기, 플라스틱 쇼핑백에 대한 법률, 1990년에 발효. 1990년 10월 필름용 전PE 수지에 10% 과세법 성립, 쇼핑백법을 대체	액체용 용기, PE 필름 포장 전부(쇼핑백 포함)	사업자는 여러 조직을 통해, 지방자치체와 제휴할 책임이 있다
네덜란드	자주적인 협정:포장협정 1991년 발효, 2001년까지 감량	시장에 나오는 모든 포장물	사업자는 거래 의무 수집·분별은 지방자치단체
영 국	산업계에서 1994년 초에 안전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	시장에 나오는 모든 포장물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은 없다 업계는 폐기물 시장의 형성을 성행시킨다
노르웨이	폐기물 삭감·최소화 법률안. 일부 비회수성 음료 용기에 대해 과세 있음	비재충전 맥주, 탄산 음료, 포도주, 위스키류의 용기	재충전할 수 있는 유리 및 PET병 예치, 동시에 현금 반환제를 채택
스위스	재충전/리사이클 가능한 음료용기법. 1991년 11월 이후 PVC 음료 용기를 금지	청량음료수·맥주, 음료수 용기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HDPE와 PET를 분리하는 방식
스웨덴	에코사이클법 1993년 5월	광범위한 분야를 커버, 포장관련 조항은 1994년 1월 발효	업계내에서 자주 협정이 확립되면 조항은 회피할 수 있다.
핀란드	1979년 폐기물 처리법, 의회에서 개정중. 특정 포장 형태에 대해 별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특정한 폐기물에 대해 2차 규제를 신법에서는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체, 사업자, 소비자 협력
EU 지령안	일반 통칙이 1993년 12월 가맹국에 의해 채택	시장에 있는 모든 포장폐기물	책임분담원칙, 특정한 요구 없음

95%, 노르웨이에서는 면세를 위한 제안이 90%,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0년까지 포장물 80%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한 국가가 많다. 한

편 EU 지령안에서는 5년 이내에 최고 45%로 되어 있다. 에너지 회수에 대해서는 1991년 기준으로 스위스 72%, 스웨덴

56%, 벨기에 45% 등 의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예치 제도는 없으나 프랑스에서는 포

자금 조달	회수 목표	에너지 회수	예치 외
수집회수단체(ARA)가 1리터 이상용기 1개 1s(9엔), 1리터 이하 0.3s(2.7엔) 징수	수집회수율, 1995년까지 40%, 1998년까지 60%, 2000년까지 80%	판매용 포장에 대해서만	재충전 플라스틱 음료용, 재충전이 불가능한 음료용 용기에 대해서는 4s(36엔)을 강제 예치
음료 용기에 Bf/1(45엔/l) 과세. 회수율 70%에 이르면 보류	비재충전 금속·유리용기는 80% 비재충전 플라스틱 용기는 70% 1998년에 달성	1991년 45%, 62%까지 허용하나 2000년에는 42%로 한다.	1991년 4월부터 음료용기 리터당 75Bf(225엔), 최저 75Bf(21엔), 1998년에 60%의 리사이클물을 달성하면 면세, PVC는 면세없다.
포장물의 재료·용적을 기준으로 각종 과세	2000년까지 포장폐기물 15% 삭감 포장물의 80% 회수 음료용기의 75%를 리사이클 가능한 재료로 제조, 포장용 PVC 사용을 85% 삭감	폐기물의 75%는 에너지 회수형 연소	일본산에서는 재충전 가능한 병을 강제, 수입에서는 강제 예치 및 반환 리사이클 시스템
에코엔벨러프는 포장물 단위당 요금으로 자금을 조달	2000년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포장폐기물은 75% 회수, 60% 이하의 재료는 없게 한다	전체 회수기술 등을 평등하게 생각한다.	없다. 포장물 단위당 요금으로 커버
DSD는 포장 단위당 요금, 그린도트로 자금 조달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삽입 원료에 대한 리사이클을 포함하여 1995년까지 64% 회수, 현재 재검토중.	회수 선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에 의해 재검토중.	리사이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의 시장점유율이 72% 이하이면 강제 예치제로 한다.
경비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관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한다. 플라스틱은 10% 과세	리사이클법에서, 1992년까지 플라스틱 40% 회수로 되어 있었으나 2년간 연기	왼쪽에 적은 목표의 20%까지는 에너지 회수이어도 된다.	없음 수지 가격의 10% 과세로 커버
경비는 사업자와 지방공공단체 간에 분담	1995년까지 전체 포장의 40%, 플라스틱 병의 50%, 오피스 점포에서 깨끗한 필름의 50%	2000년까지 모든 포장폐기물의 최대 40%를 에너지 회수	유리, 플라스틱 병으로 수입되는 모든 청량음료수에 예치제 실시
업체안 대기	2000년까지 리사이클할 수 있는 가정폐기물의 50%를 리사이클	정부는 에너지 회수를 지지	없음
비재충전 음료 용기(우유는 제외)에 과세	면세를 위한 회수시스템 법안에서는 회수율 90%로 설정	적절한 회수 방법으로서 정부는 수락. 현재는 도시쓰레기의 8%	비재충전 맥주, 탄산음료수에 3.5NK(50엔), 포도주, 위스키 비재충전 용기에는 2.5NK(38엔)의 포장 과세
폐기물 비용은 가격 안에 포함	야심적인 리사이클 목표는 1997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의 65%, PET병의 90%	1991년에 56% 달성	캔은 예치 0.5Skr(7엔), 비재충전 PET 병은 4Skr(56엔), 리사이클 시스템을 정비하면 면세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는 예치/반환시스템. 인플라스트리처 정비 자금으로서 플라스틱 음료용기에는 과세	1회용 폐기 유리, PET 캔의 음료 용기에 상한을 설정하는 할당시스템을 적용기에는 과세	1991년에 72% 달성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 600cc 이하 0.2SF(15엔), 이상 0.5SF(37엔), 1회용 용기에는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강제 예치제 적용
포장세	세 도입후 4년 이내에 95%의 회수율 (1년 이내에 75%, 2년 이내에 85%, 3년 이내에 90%)	석탄, 비트의 보충으로서 연포장재 연료(PDF)의 사용을 시험 검토중	탄산청량 음료수에 2FM(40엔 회수율이 달성되면 최저 예치를 0.5~1.5FM(10~30엔)으로 한다.
특정한 요구 없음 경제적인 기법은 인정된다.	리사이클 목표 5년 이내에 최저 25%, 최고 45% 각 재료에 대해 최저 15%	5년 후에 경제적인 에너지 회수율 15~45%의 폭으로 한다	재사용 시스템을 무역 장해가 되지 않게 한다

장 단위당 요금으로, 또 이탈리아에 서는 수지 가격의 10% 과세로 커 버하고 있다(자료:『컨버테크』 1994.6, 加工技術研究會).

헝가리, 플라스틱 수입 확대
국영기업 영업부진, 외국사 호조

헝가리는 7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권 경제통합 계획에 따라 플라스틱 산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져 PVC, PE, PP 등 플라스틱 원료의 대량생산 기반을 갖추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이들 국영기업의 영업부진이 심각해짐에 따라 플라스틱 수입이 확대되는 등 개인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활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옛 소련에 대한 높은 원재료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체 공급선을 찾지 못한데다 헝가리 자체 생산이 한정돼 있어 폴리아미드, 셀룰로스계 플라스틱 등 제품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플라스틱 소비동향을 보면 지난 89년에 64만3천톤 생산에 48만7천톤이 소비된 것을 최고로 90년 이후 국내 산업활동의 침체와 함께 36만톤 수준으로 떨어졌다.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물품운반 용기, 기계부품, 테이프류 등과 건축분야와 통신 등 인프라 개발사업 및 포장재료 등의 새로운 수요창출에 의해 관 파이프류 등 산업용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주방용품 등 가

정용 소비재는 외국인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생산이 늘고 있어 현재는 수입신장세가 미미한 수준이다. 플라스틱 가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헝가리 내 플라스틱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외자기업 참여 분야는 자동차부품, 포장재, 관구류와 부속 기기류 등이다.

캐나다 포장디자인 새 조류
색상 밝고 그림·선전문구 삽입

캐나다의 상품 포장디자인이 제품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이나 그림, 선전문구가 새겨지는 등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오늘날 포장은 '말없는 세일즈맨'이라 일컬어지듯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포장디자인이나 상품의 외형이 판매고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는 캐나다 소비자들의 40% 정도가 상점에 들어가기 전 미리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결정했지만 현재는 20% 정도만이 전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의 초점을 과거 전통적인 광고에서 길포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쟁상품의 홍수 속에서 자사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10년에 두 번 정도 포장디자인을 바꾼 것이 전부였으나

지금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매 3.4년마다 새로운 포장디자인으로 바꾸고 있다. 디자인 경향은 극적인 변형보다는 이미 친근해져 있는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기업이미지를 살리고 있다. 또한 단순한 디자인에 바탕 색상을 밝고 가볍게 해 다른 상품에 비해 쉽게 눈에 띄도록 하고 있다.

체코, 환경마크제도 도입
환경보호 상품에 E마크

체코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산품 표시제도와 함께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 6월중 체코 환경장관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우수상품에 체코의 국산품 표시와 함께 E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의 도입에 따라 재생용지를 활용해 제조한 절연체에 이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체코 정부는 이 환경마크제도 운영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고 마크 부착을 위한 표준생산 공정의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마크 부착은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상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기간을 중심으로 심사해 허용한다. 수입제품에 대한 마크 부착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무전극 UV옵셋인쇄기 도입

토쓰야, 플라스틱도 고정밀도 인쇄

토쓰야사는 최근 고모리(小森)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획기적인 7가지 색의 UV 옵셋 인쇄기를 도입하였다. PVC(염화비닐)나 PP 등 플라스틱 시트에 본격적인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건조 장치에 열선을 절단하는 무전극형 UV 램프를 적용하였다. 건조 공정에서 열을 그다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에서는 클리어 패키지(Clear package), 문구 등에 대한 인쇄에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토쓰야가 도입한 UV 옵셋 인쇄기는 플라스틱 시트 필름이나 합성지, 알루미늄 증착지, 알루미늄 호일 라미네이트지 등 종이 이외의 것에도 고정밀한 인쇄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건조 장치이다. 미국 푸조사의 열선 절단 UV 장치를 유닛형으로 하여 3대를 조립하였다(3대 탑재). 종래 사용하던 UV 큐어(Cure)와는 달리 전자파로 램프를 발광시키기 때문에 복사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램프의 방열량이 적기 때문에 열에 의한 인쇄물의 신축이 억제되고, PVC를 비롯하여 PP, A-PET 등 종래에는 인쇄하기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던 열가소성 수지에도 고정밀한 인쇄를 할 수 있다.

인쇄 색상은 순백색, 흰색,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투명 니스색으로 7가지 색이다. 유닛은 10개가 있고,

UV 건조 장치는 제 3 유닛과 제 6 유닛, 니스 유닛과 배지(排紙)부의 중간에 있다. 인쇄할 때에는 2~3가지 색의 잉크를 먹이고 그때마다 UV 램프로 건조시킨다.

합성 수지에 대한 인쇄는 현재 불황의 영향으로 규모가 큰 인쇄 회사의 참여 추세가 현저하다.

펄프원료 식품용기 개발

올팩, 내수성 우수·비용 저렴

올팩사가 컵이나 트레이 등과 같은 식품 용기를 펄프 섬유에서 제조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다. 설비나 금형 투자가 플라스틱 용기를 성형하는 것과 같은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이 메리트이다. 용기는 어떤 형상이든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는 점 외에 내수성도 뛰어나 폭넓은 용도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동사에서는 「펄프 컵」이라는 명칭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하여 과자나 도시락 상자의 칸막이 등과 같은 분야에서 판로를 확립하고, 3년 후에는 연간 3억엔의 매출을 올릴 것을 목표로 한다.

「펄프 컵」은 1~2mm라는 박육화에 더하여 구경(口徑)과 동등한 디프드로잉 성형을 실현한 획기적인 펄프 몰드 용기이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식품 트레이에서부터 바닥이 깊은 음료 컵에 이르기까지 각종 성형품을 비교적 낮은 코스트로 제조할 수 있다.

원료는 펄프 섬유를 사용한다. 원료와 성형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성형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개선하였다. 플랜지를 부여하는 것도 간단하고, 뚜껑을 닫을 때의 감합성도 확보할 수 있다. 용기의 형상이나 디자인 등도 플라스틱 용기에 뒤떨어지지 않고, 내수성도 있기 때문에 범용 플라스틱 용기의 대체품으로서도 기대한다.

종이 특유의 감촉과 환경 적성도 간과할 수 없는 판매 요소이다. 동사에서는 일본 종이 고유의 특성과 특유의 색을 추가한 고부가가치 타입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성공하여 용기의 고급스러움을 높인 것도 강점이다. 또 리사이클이 가능한 데다 사용하고 난 후의 처리가 간편하게 되어 있다.

현재 설비는 본사 공장에 1일 생산 약 10만개인 성형 라인을 도입하였다. 수요 신장에 맞추어 점차 설비를 증강해 나갈 계획이다. 금형도 비교적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고, 설비도 소형기를 조합하는 타입이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다고.

규격품은 6종류이다. 환형(丸型) 타입으로서는 구경 27mm×깊이 25mm, 구경 55mm×20mm로 2종류이다. 각형(角型)으로서는 세로 90mm×가로 90mm×깊이 25mm인 정사각형 타입을 마련하였다. 게다가 원통 용기(종이 캔)의 금속 뚜껑 등도 개발하고 있다.

용도는 식품 용기를 중심으로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도시락 상자의 칸막이 나 각종 테이크 아웃

(Take out) 용기 등 환경 적성을 살리는 용도에서 전개된다. 한편 과자 등 용기의 고급스러움을 살리는 분야에서도 수요 개척에 몰두해 나갈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10~30% 정도 비싸나 동사에서는 올 봄부터 시험 판매를 통해 앞으로의 전개에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경량 낱알 완충재 판매

스토라팩, PS 원료 불과 0.4%

스토라팩사는 최근 원료인 폴리스티렌이 불과 0.4%이고, 나머지 99.6%가 공기라는 초경량 발포 낱알 완충재 「후와후와 S」를 발매하였다. 경량이어서 수송비를 삭감할 수 있고, 원료 비율이 낮으므로 후처리나 리사이클을 하기 쉬운 것이 포인트이다. 동사가 미국 스토라팩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지난 6월말부터 일본 국내에서 독점으로 제조 판매를 개시하였다.

「후와후와 S」는 PS를 초고배율로 발포하여 S자형의 독특한 형상으로 성형한 낱알 완충재이다. S자형상이기 때문에 서로 얽히거나 꼬이거나 함으로써 높은 공간 충전 성능과 완충 성능을 발휘한다. 고배율 발포이므로 유연성과 쿠션성이 풍부하고, 피곤포물을 유연하게 포장하면서도 단단하게 고정하여 진동 흡수력 면에서도 우수하다. 또 복원성도 높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버진 원료를 사용한 「후와후와 SW」(화이트)와 재생 원료를 사용

한 「후와후와 SG」(그린) 두 타입이 있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한다. 양 타입 모두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도 표준 소매가격이 동일하게 한 자루(약 0.4m²)에 3,660엔이다.

스토라팩은 이미 분해성 발포 낱알 완충재 「리네이처」로 미 스토라팩사와 제휴를 맺어 일본 국내에서 전개하였다.

메타로센 촉매로 PP 시험 제작

東燃화학, 파일럿 플랜트로

東燃화학은 메타로센 촉매에 의한 결정성 폴리프로필렌(=아이소탁틱 PP, 이하 iPP)의 상업화를 위해 7월부터 파일럿 플랜트에 의한 시험 제작을 개시했다.

「메타로센 촉매」는 차세대의 폴리올레핀 프로세스로서 주목받고 있다. iPP의 메타로센 촉매는 미국 엑스케미칼사와 독일 헤키스트사와의 공동 개발에 의거하는 기술로, 동촉매 기술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양사가 선행하고, 특허면에서도 양사는 막강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東燃화학은 지금까지 PP사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초고결정 PP에서 연질 PP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응이 가능한 촉매 기술과 중합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 또 동사는 생산 기술과 연구 개발에 관해 엑스사와 포괄적인 제휴를 맺어 이번에 메타로센 촉매를 사용한 국내시장용 iPP의 상업화를 일찍부터 검토해 왔다.

메타로센 촉매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폴리머는 좁은 분자량 분

포, 균일한 조성 분포 등의 특징을 갖는다.

분자량이 좁은 것은 분자의 배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강도이면서도 아주 미세한 섬유와 부직포 등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낮은 분자량 성분이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용출·발연(發煙)·끈적거림·냄새 등의 문제가 크게 감소하는 점에서 식품 포장·의료관계 용기 등에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조성 분포의 균일성은 보다 적은 코모노머(Comonomer)로 소기의 성능을 갖는 공중합물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온 열봉합성이 우수하고, 투명성·강도가 높은 필름을 얻을 수 있다.

점착테이프·시트류 출하 현황

91년 후, 저가격화로 채산성 불확실

일본점착테이프공업회는 최근 점착 테이프·시트류의 출하 수량·금액 실적 추이(10년간)를 정리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실적에서 피크는 1991년도로 수량 12억 2,734만 8,742m²이고, 금액은 1,550억 1,738만엔이다. 1992년도에는 수량, 금액 모두 1990년도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1993년에는 전년 대비 보험 움직임을 보였다.

1984년부터 피크 시기이던 1991년까지 7년간의 신장 추세를 보면 수량이 3억 4,068만 2,813m²이고, 금액은 249억 3,489만 5,000엔이다.

7년 동안 전년 대비 신장률 평균은 수량이 5.0%, 금액이 3.3%이다.

그동안에 현저한 신장을 보인 것

은 1987년도(수량 7.8% 증가, 금액 5.4% 증가)와 1988년도(수량 7.5% 증가, 금액 6.6% 증가)이다.

1989년도 들어서는 1990년도의 수량 5.5% 증가, 금액 6.0% 증가의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순조로운 신장 추세 속에서도 수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비해 금액은 1985년도와 1986

년도에 약간 감소하였다. 이 2년간 이외에도 수량 신장률에 비해 금액 신장률은 1984년도를 제외하면 항상 밀들고 있어 점착 제품이 그 10년 동안에 서서히 저가격화해 왔음을 읽을 수 있다. 경기가 불황을 맞고부터는 시황 악화로 채산성에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었다.

작년에는 전반기의 불황을 후반

에 몇 번인가 만회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작년 이래 필름 점착 테이프류가 호조였으나 이는 작년부터 점착 시트류의 분류를 변경하여 「박리지불이」만으라고, 「박리지가 없는 폭을 넓은 상품」을 필름 점착 테이프류로 분류한 영향에 기인한다(표 1, 2 참조).

(표 1) 점착테이프·시트류의 출하 수량 실적 추이(10년간)

종 류	종이점착 테이프류	형감점착 테이프류	필름점착 테이프류	기타 특수점착 테이프류	점착시트류 테이프류	합 계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전년비
1984년	392,955,782	86,629,419	257,363,696	32,614,707	117,102,325	886,665,929	106.6
1985년	417,348,689	96,849,346	277,078,961	33,106,692	101,437,090	925,820,778	104.4
1986년	433,631,608	100,104,964	273,247,059	34,578,517	103,664,161	945,226,309	102.1
1987년	463,041,357	109,759,373	288,058,874	36,513,017	122,045,655	1,019,418,276	107.8
1988년	501,352,202	121,364,797	300,642,248	40,154,548	132,456,154	1,095,969,949	107.5
1989년	516,365,478	123,242,785	303,787,869	43,285,860	133,972,323	1,120,654,315	102.3
1990년	528,835,118	129,080,008	323,939,616	47,202,254	153,433,634	1,182,490,630	105.5
1991년	558,106,534	136,142,562	334,484,370	48,584,402	150,030,874	1,227,348,742	103.8
1992년	536,747,245	133,791,676	321,460,397	43,847,152	142,593,583	1,178,440,053	96.0
1993년	551,080,936	134,780,846	392,329,243	47,793,392	*)58,277,257	1,184,261,674	100.5

연도:4월~다음해 3월
단위:m²

(표 2) 점착테이프·시트류의 출하 금액 실적 추이(10년간)

단위:생산자 판매 가격(천엔)

종 류	종이점착 테이프류	형감점착 테이프류	필름점착 테이프류	기타 특수점착 테이프류	점착시트류 테이프류	합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전년비
1984년	31,531,416	19,951,567	42,106,194	17,990,093	18,503,215	130,082,485	108.5
1985년	31,052,079	21,634,459	42,574,763	18,314,657	16,378,610	129,954,568	99.9
1986년	30,446,705	21,633,556	39,366,046	19,227,661	16,488,023	127,161,991	97.9
1987년	31,392,102	23,256,561	39,683,005	20,004,859	19,629,157	133,965,684	105.4
1988년	33,482,042	25,441,913	40,471,520	21,953,347	21,445,554	142,794,376	106.6
1989년	33,199,220	25,365,485	40,335,089	23,426,700	21,847,787	144,174,281	101.0
1990년	33,409,361	26,267,048	42,270,337	25,515,042	25,292,227	152,754,015	106.0
1991년	34,348,066	27,615,589	42,343,678	26,152,365	24,557,682	155,017,380	101.5
1992년	31,944,527	26,382,987	39,528,650	23,895,211	22,903,183	144,654,558	93.3
1993년	32,003,802	26,156,932	47,798,731	27,465,369	*)9,872,434	143,297,268	99.1

* 점착 시트류에 대해 1992년까지는 '박리지 없는 폭넓은 상품'을 분류에 포함하였으나, 1993년부터 '박리지불이'만의 분류로 하였다. '박리지불이'만의 전년비는 수량 83.3%, 금액 73.2%가 된다.